

가수 '에녹', 강진 '불금불파'서 관광객 애태운다!

강진군은 오는 25일 병영시장에서 현역가왕2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에녹'을 초청해 특별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가수 에녹(본명 정용훈)은 2007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해 꾸준히 뮤지컬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 불타는 트롯맨, 한일트텐쇼, 현역가왕2 등에 출연하며 트로트계 해성같이 등장한 가수로, 에녹의 공연을 본 수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가창력에 감탄하며 그 인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올해 3주년을 맞은 강진불금불파와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25일 병영시장서 특별 공연... '이훈주', '진이랑'까지 총출동
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는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하고자 기획했다. 또한 강진 외부에서 오는 다수의 팬들로 인해 생활인구 증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행사는 17시 30분 싱어송라이터 '이훈주'와 강진 출신 가수 '진이랑'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영퀴즈 경품 행사, 자전거 여행, 아트마켓, 하멜존맥주 시음 등 다양한 체험도 펼쳐진다. 에녹 가수의 특별한 초청공연이 끝난 후 이어 DJ 장군 & 댄스팀의 EDM 공연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불금불파 행사장에 인기 가수 에녹을 초청한 이유는 강진 불금불파를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민의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함이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불금불파 행사장에서 느낀 뜨거운 분위기를 집으로 돌아가 홍보 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가 돼 강진의 매력을 한층 더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5월 15일까지 '동구, 도시의 기억을 담다 옛 사진 공모전' '도시여행자를 위한 재생 공간 산책 Vol.2' 수록 예정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변화한 지역의 매력을 담은 로컬 브랜드 북 '도시여행자를 위한 재생 공간 산책 Vol.2'에 담긴 사진을 찾는 '동구, 도시의 기억을 담다- 옛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Vol.1에 이어 올해 제작되는 Vol.2는 총장동과 대인동, 서남동을 중심으로 동구의 공간과 사람, 이야기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과거의 사진을 제공하고, 그에 얽힌 추억이나 일화를 들려주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생생하고 따뜻한 기록을 남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Part 1. 광주극장 등 오래된 문화공간과 노포들 ▲Part 2. 총장동 혼수의 거리, 수제화, 도깨비 골목 등 지역 장인들의 삶 ▲Part 3. 대인예술시장, 김넛과 깔러리, 오가현 등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기 ▲Part 4. 인쇄의 거리의 산업과 인물들 등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옛 사진 공모전 '동구, 도시의 기억을 담다'의 참여 대상은 책에 담길 총 4개의 파트와 관련된 장소와 추억이 있는 사진

을 가진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메일 (rabbit2642@kore.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062-608-2762)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사진은 '도시여행자를 위한 재생 공간 산책 Vol.2'에 수록될 예정이며,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책지도 제공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책자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삶이 녹아든 도시재생의 살아 있는 이야기다"면서 "도시를 여행하는 이들뿐 아니라 동구에 살아온 주민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발간된 '도시여행자를 위한 재생 공간 산책 Vol.1'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해 동구 인문학당, 동명동 카페거리, 빛의 읍성, 푸른길 공원 등 오래된 역사의 공간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시대와 소통하는 동구만의 문화적 재생 사례들을 담고 있다.

/김명수 기자

'국가무형유산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 2025 공개행사 개최

'장도장,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주제로 전통 기술 실연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 진행



국가무형유산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이 '장도장,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이라는 주제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공개 실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후원하고,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이 주관하며, 광양장도전수교육관(광양장도박물관)에서 진행된다.

광양장도전수교육관(관장 박종군)은 3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광양 장도의 깊은 역사와 섬세한 공예미를 간직한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장도를 전시하는 관람 공간과 장도 제작 과정을 직접 선보이며 살아 있는 기술을 전하는 공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개행사는 전통 공예인 장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히

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 기술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했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장도 제작의 전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개행사 기간에는 장도 공방을 일반에 개방하고,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장도 제작 실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작업실과 전시실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구성되며, 국가무형유산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과 이수자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장도전수교육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공지 사항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군 관장은 "장도를 만들 때는 장인의 혼과 온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1대 장도장인 선친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개행사는 장인의 정성과 기술이 깃든 장도의 공예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장도 제작 과정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노련한 손길에서 탄생하는 장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양시는 앞으로도 전통 기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진도군은 예향(藝鄕) 진도의 뛰어난 문화예술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다른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미술관 - 진도 서화의 개화, 추사를 찾아서 문연(夢緣)'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4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주도의 추사 김정희 유배지인 제주 추사관에서 열리며, 진도군 남도전통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진도 출신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1808-1893)의 「산수8곡병」, 미산 허영의 「팔군자8곡병」, 소전 손재형

진도군, 제주추사관에서 '찾아가는 미술관' 개최

'진도서화의 개화, 추사를 찾아서 문연(夢緣)'으로 진도 서화의 맥을 잇다

의 서예 작품, 남농 허견의 「소나무」, 의재 허백련의 「여름 산수」, 백포 낙남배의 「전가풍추」 등 진도 출신 작가 대표작 34점이 전시된다.

진도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한편, 진도군의 예술적 정체성과 깊이를 전국적으로 알리

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도의 서화(書畵)는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에게 화법을 전수받은 소치 허련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그의 후손과 제자들에 의해 대를 이어 전승되며 호남 지역 회화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소치로부터 시작된 진도 서화는 시대에

따라 주제와 감성, 기법에서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진도군 남도전통미술관 관계자는 "유서 깊은 예향 진도의 우수한 예술 작품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술관을 관외에서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공립미술관으로서 소장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롭 반 바벨 트리오와 함께하는 '화순 재즈 축제' 29일 개최

화순 청년 뮤지션과 세계적 재즈 뮤지션 롭 반 바벨 트리오 협연

화순(군수 구복규)은 오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2025 화순 재즈 축제 - 국제 재즈데이 in 화순'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5 화순 재즈 축제 - 국제재즈데이 in 화순'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2025년 '국제 재즈데이'를 맞이해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롭 반 바벨(Rob Van Bavel)과 그의 트리오를 초청해 추진하는 행사로 재즈의 정수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자리이다.

지난해 개최된 '2024 화순 재즈 축제 - 국제재즈데이 in 화순'에는 롭 반 바벨이 솔로로 참여해 화순 청년들과의 협연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는 그의 정식 트리오가 전원 내한하여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재즈 사운드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롭 반 바벨 트리오와 함께 드러머로 무대에 오르는 신원주는 화순 출신 청년 뮤지션으로 이번 협연을 통해 국내외의 재즈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개최되며, 전석 무료 초대 형식으로 운영된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 관람은 이메일(01090590102@hanmail.net)을 통해 별도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